광복70년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경제혁신 희망의 새시대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보 도 자 료
http://www.motie.go.kr

2015년 11월13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11.12일(목) 오전 11시 이후 보도가능)

문의 : 전력진흥과 김성열 과장(044-203-5260), 권덕중 서기관(044-203-5261)

◇ 「전력산업의 변화와 혁신을 반영하는 제도 설계」 컨퍼런스 개최

- **에너지 신산업 수용 등 선진국의 전력산업 관련 법제 사례 분석**
- **전력분야의 신기술과 시장의 변화를 가급적 조속히 제도화**

1. 컨퍼런스 개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11. 12.(목) 오후 팔래스호텔에서 한국전력거래소, 스마트그리드사업단과 함께 "**전력산업의 변화와 혁신을 반영하는 제도 설계**" 컨퍼런스를 열었다.

○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산·학·연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력분야에서 새롭게 출현하는 제품·기술·서비스 등에 대한 해외의 법제 정비 동향을 분석하고, 국내 전력산업과 전력시장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했다.

< 「전력산업의 변화와 혁신을 반영하는 제도 설계」 컨퍼런스 개요 >

- 주제 : 전력산업의 변화와 혁신을 반영하는 제도 설계
- 일시/장소 : '15.11.12.(목) 14:00, 팔래스호텔
- 참석자 : 산업부 에너지산업국장, 법률 전문가 등 산·학·연 관계자 150여명
- 주요내용
  - 주요 선진국의 전력산업 관련 법제 변천과 에너지新산업 수용사례 등 분석
  - 국내 에너지신산업 창출을 위한 제도 개선 시사점 논의 등

에너지에서 찾은 미래 에너지신산업 시장으로 | 미래로 | 세계로

2. 전력 산업의 혁신과 제도

□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전력공급의 안정성과 우수한 품질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전력 산업**은 국가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을 뿐 아니라 **경제개발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언급했다.

○ 또한 경제적이고 이상적인 전원 구성과 전국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송배전망, 누구나 차별 없이 공급되는 우리나라의 전기서비스는 **해외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강조했다.

* 세계은행(World Bank)의 '15년 기업환경 평가에서 한국은 전기공급신뢰도, 요금 투명성 등에서 만점을 받는 등 전력공급 분야에서 2년 연속 세계 1위 차지 ('15.10.28)

○ 채정책관은 최근 인류 전체의 숙제가 된 **온실가스 감축 문제는 물론이고, 새로운 기술과 다양한 분산자원의 등장***은 전력산업과 전력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담아낼 수 있도록 **기존 제도가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전기자동차, 전기저장장치, 수요반응, 태양광·풍력·전기발전보일러 등 분산자원

□ 이어 채 정책관은 그간 정부는 전력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전기사업법에 **에너지신산업의 하나인 수요반응 시장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 앞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에너지저장·스마트미터 등 **새로운 기술과 혁신상품의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분산 자원·전력 데이터·마이크로 그리드의 구체적 정의와 활용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 분산자원 중개시장 개설, 전력 데이터 활용과 프라이버시 조화, 전기자동차 충전 관리와 소비자 보호, 마이크로그리드 연구개발과 해외 진출 등

○ 아울러, 해외에서는 에너지와 전력분야의 기본법을 활용해 전력시장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혁신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음을 말했다.

* 미국 에너지정책법 중 전기사업 분야(Title XII): 송배전 분야 신기술(HVDC, energy storage, distributed generation, power electronics 등), 상계(net metering), 시간제 요금(time-of-use pricing), 시간제 계량기(time-based meter), 수요반응(demand response), 분산전원의 계통연계(interconnection service), 시장의 투명성과 소비자 보호(market transparency and consumer protection), M&A 심사(merger review) 등을 규정

* 미국 에너지독립법(EISA): R&D, 에너지저장, 청정석탄(clean coal), 탄소 포집 및 분리(CCS), 스마트 그리드(interoperability, matching fund, security, CHP 등) 등을 규정했다.

□ 끝으로, 채희봉 정책관은 전기와 관계되고 전력산업과 전기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술과 혁신은 기본적으로 전력산업과 전력시장을 다루는 제도에서 다루어져야함을 강조했다.

○ 전통적 제도와 시스템이 가지는 전력공급의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라는 기본원칙을 견고히 지키면서, 21세기 기술과 시장의 발전을 담아내고 전력산업의 혁신과 변화를 반영하는 제도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3. 컨퍼런스 주요내용

□ **(기조발표)** 전기사업법은 전통적 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체계로 현재까지 전력산업과 시장의 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고 전력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전력분야의 근간이 되는 전기사업법의 현대화가 필요하다.(서울대학교 문승일 교수)

□ **(세션1)** 주요 선진국의 전력산업 관련 법제의 변천 과정과 함께 새로운 기술의 수용, 전력시장의 투명성과 소비자보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사례 등을 발표했다.

○ 미국의 에너지정책법*, 에너지독립법*, 유틸리티 규제정책법* 등의 전력 관련 제도와 에너지규제위원회의 행정명령(FERC Order), 캘리포니아주의 전기사업 규제제도 등을 분석했다.(법무법인 광장 조영재 변호사)

* The Energy Policy Act(EPA), The Energy Independence and Secutiry Act(EISA), The Public Utilities Regulation Policy Act(PURPA) 등

○ 전기저장장치(ESS), 분산형 전원, 수요자원 거래시장(DR) 등 혁신형 기술이 등장하면서, 유틸리티 및 소비자의 행태 변화를 유도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출현(건국대학교 박종배 교수)

□ **(세션2)** 전기사업법과 지능형전력망법 등 기존 제도의 성과 및 한계를 분석하고,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의 수용과 에너지신산업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모색했다.

○ 현행 전기사업법과 지능형전력망법에 담겨 있는 에너지신산업·신기술 관련 사항을 분석(법무법인 영진 이광민 변호사)

- 특히, 전기차 확산을 위한 필수 인프라인 전기차충전사업 요금제도, 사업자 지위 등에 대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

○ 마이크로그리드, 전기저장장치, 수요반응, 빅데이터, 분산자원 중개시장(Aggregator) 등 최근 부상하고 있는 전력분야 新산업의 법·제도적인 이슈를 분석(아주대학교 최창호 교수)

○ 안정적 전력공급 및 소비자 보호라는 정책목표와 조화를 이루면서 현행 전기사업법상 전기충전사업자의 지위, 스마트미터 데이터 소유권 등 신기술과 새로운 서비스를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 (법제연구원 김종천 연구위원)

4. 향후 정책 방향

□ 산업부는 금번 컨퍼런스에서 다뤄진 전력분야 신기술 및 서비스 동향과 해외 입법사례 등을 바탕으로 **시장의 변화를 담아내고, 전력분야 신산업의 창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① 우선, **새로운 혁신기술과 서비스**가 전력산업과 전력시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의와 근거를 명확히 마련

○ 전기차 충전사업, 전기차 충전기의 별도 부하 관리, 분산형 전원과 모집 및 중개시장, 전기저장 장치, V2G·초고압직류송전·마이크로그리드 등 혁신기술, 신기술 표준 제정 등

② **전기소비자 보호와 신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도도 정비

○ 전기차 충전 소매요금 관리 및 충전요금 관련 분쟁해결 절차, 스마트미터 개인정보 보호와 전력 분야 공공데이터의 활용 등

③ **온실가스 감축과 분산형 전원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 구역전기사업의 자생력 강화, 전기발전보일러 등 신규 분산형 전원의 전기설비 기준 마련, 배출권거래 및 신재생의무이행(RPS) 정산제도 개선, 분산전원에 대한 전력시장 우대 등

□ 정부의 24개 핵심 개혁과제 중 하나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은 에너지 신산업 육성으로 산업부가 추진중이다.

○ 최근 강화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기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저유가, 저금리 등을 통해 확보된 민간 투자 여력을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투자로 유도하기 위함이며, 나아가 2017년에는 민간 중심의 자생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하고 있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권덕중 서기관(044-203-526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에서 찾은 미래 에너지신산업 시장으로 | 미래로 | 세계로

붙임1 「전력산업의 변화와 혁신을 반영하는 제도 설계」 컨퍼런스 계획

1. 컨퍼런스 개요

○ **(주제)** 전력산업의 변화와 혁신을 반영하는 제도 설계

○ **(일시/장소)** '15.11.12(목) 14:00~16:45 / 팔래스호텔

○ **(주최/주관)**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 **(참석)** 산업부 에너지산업국장, 법률 전문가 등 산·학·연 관계자 150여명

2. 진행 프로그램(안)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교
축사	14:00~14:10 (10')	축사	에너지산업정책관
기조발표	14:10~14:25 (15')	전력산업 여건변화와 전기사업법	문승일 교수 (서울대)
세션 1 : 해외의 전력산업 변화와 법제도 동향			
발표 1	14:25~14:40 (15')	미국 에너지법제 변화 동향	조영재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발표 2	14:40~14:55 (15')	해외 에너지新산업 수용 사례	박종배 교수 (건국대)
Coffee Break(14:55~15:15)			
세션 2 : 에너지新산업 지원을 위한 국내 제도 개선 방향			
발표 1	15:15~15:30 (15')	전기사업법과 지능형전력망법 현황	이광민 변호사 (법무법인 영진)
발표 2	15:30~15:45 (15')	전력에너지新산업 분야 제품, 사업모델별 법·제도 이슈	최창호 교수 (아주대)
발표 3	15:45~16:15 (15')	국내 에너지新산업 수용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김종천 박사 (법제연구원)
세션 3 : 패널토의			
패널토의	16:15~16:45 (30')	전력에너지新산업 조기정착을 위한 고려 사항 (패널위원 : 6명)	좌장: 송경빈교수 (숭실대)